

## “문재인 거짓말 정부, 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마저 빼앗나”

금속노조, 전국 아홉 개 민주당사 앞 동시 기자회견 ... 노조법 개악 철회, ILO 핵심협약 즉각 비준 요구

금속노조가 문재인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이 노사관계의 추를 사용자 쪽으로 크게 기울게 한 다며 개악 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노조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에 맞춘다는 핑계를 대며 국회에 제출한 개정안 오히려 ILO협약을 거스른 다며 조건 없는 비준을 요구했다.

금속노조는 9월 23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앞에서 ‘단체협약 3년 연장, 징의행위 금지, 교섭 창구 단일화, 산별노조 활동 제한, 민주당의 노동3권 말살, 노동법 개악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서울을 비롯해 광주와 대전, 부산, 경기, 충북, 경북, 경남, 전북 등 전국 아홉 개 민주당사 앞에서 동시에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조는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는 ILO 협약 비준 등 결사의 자유를 인정하기 위해 노조법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알 수 없는 말을 내뱉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문재인 정부는 ILO 가입 30년이 지났지만 핵심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과거를 부끄러워하라. 이제라도 아무 조건 없이 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노조는 노조법 개악을 중단하고 지난 9월 22일 시민 10만 명이 서명해 법안 발의한 ‘전태일 3법’을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호규 노조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코로나 19로 가득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에게 닥친 재난 상황에서 노동자에게 더 불리한 기울어진 운



동장을 만드는 노동법 개악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다.

김호규 위원장은 “단체교섭권과 단체행동권마저 빼앗아 노동자에게 재갈을 물리려는 문재인 정부가 과연 노동 존중을 말하는 정부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라고 비판했다.

김재하 민주노총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투쟁사에서 “노동3권은 노동자의 기본권이 아닌 전 국민의 기본권”이라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국회의 노동법 개악 시도는 전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일갈했다.

김재하 비대위원장은 이어 “ILO 핵심협약은 전 세계 노동과 자본, 정부가 합의해 만든 협약이다. 문명국이라면 지켜야 할 최소 기준”이라며 “노동법 개악으로 핵심협약 정신을 위배하지 말고, 즉각 조건 없이 비준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유정 금속노조 법률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노동법 개악 안은 그야말로 국제 망신거리”

라고 규정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 개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비판하며 “문재인 정부가 ILO 협약에 부응하기 위해 노동법을 개정한다는 핑계는 명백한 거짓말이다. 정부 입법안은 노동기본권을 옥죄는 내용으로 가득하다”라고 비판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 개악이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의 핵심인 ‘노조를 설립할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유정 원장은 “문재인 정부 개정안은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의 범위를 확대하기는 커녕 축소하고 훼손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유정 원장은 “정부는 비종사자 조합원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만들어 해고자와 산별노조의 활동을 제한하려 한다. 노조 전임자 임금노사 자율 결정을 가로막고, 단체협약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징의 시 시설점거를 금지하고, 대체 인력 투입 허용하는 등 노조 무력화를 꾀하는 내용이다”라고 질타했다.

# 경북지노위, “AVO카본코리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했다”

금속노조 조합원만 해고, ‘불이익 취급’ 인정 ... 지회 “사측 재심 말고 당장 원직 복직 시행하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AVO카본코리아 사측의 부당해고와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는 판정을 내렸다.

9월 21일 경북지방노동위원회가 금속노조 대구지부 AVO카본코리아 지회가 사측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받아들였다. AVO카본코리아 사측은 생산직 노동자 열세 명을 7월 31일 해고했다. 해고 통보받은 열세 명 모두 금속노조 조합원이다.

지회는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도 함께 냈다. 경북지노위는 사측이 노조 업무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사측이 노조 운영에 지배·개입했다는 지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측은 지난 6월 23일 “코로나 19로 회사 사정이 어려워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다”라며 정리해고

를 예고했다. 지회는 사측이 정리해고를 밀어붙인 이유는 경영상 위기가 아니라 소수노조였던 금속노조 지회 조합원 수가 늘어서라고 지적했다. 지회는 사측이 금속노조가 교섭 대표노조가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지회 조합원만 골라 해고했다고 규탄했다.

박주현 지회장은 “코로나 19 확산 초기에 잠깐 주춤하긴 했지만, 물량이 다시 늘어 지금 간접부서 노동자들까지 생산 설비에서 일하고 있다. 잔업·특근도 늘었다”라며 “10년 동안 흑자였고, 코로나 19로 회사 사정이 어렵지 않은데 사측은 금속노조를 파괴하려고 거짓으로 위기를 주장했다”라고 비판했다.

박주현 지회장은 “사측은 국가 재난인 코로나 19를 정리해고와 노조파괴에 악용했다. 경북지노위의 부당해고 전부 인정과 불이익

취급 판정은 당연하다”라며 “사측의 노조 지배·개입과 노조파괴 상황이 넘쳐나지만 안타깝게도 지노위가 인정하지 않았다. 노조파괴에 관한 법률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AVO카본코리아 사측은 경북지노위 판정 다음 날인 9월 22일 “판정문을 받아 본 후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신청 등 대응 방안을 결정하겠다”라며 사내 공고문을 붙였다. 지회는 사측에 재심 등으로 시간 끌지 말고 부당해고한 열세 명 모두 즉각 원직 복직시키라고 요구했다.

박주현 지회장은 “이런 일을 꾸민 주삼탁 대표이사는 구속돼야 마땅하다”라며 “사법 당국이 사측을 수사하고 제대로 처벌하도록 노조 대구지부와 함께 노동부 압박 투쟁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마늘 까서 작업방해, 징계함”

일진다이아몬드, 쟁의행위 핑계로 대량·불법 징계 ... “보복 행위 철회 때까지 계속 투쟁”



일진다이아몬드가 불법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하고 있다. 노·사 합의로 현장에 복귀한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에게 쟁의행위를 핑계로 보복성 징계를 남발하고 있다.

‘노조 할 권리’와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해 1년여 동안 전면파업을 벌인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들은 노사 교섭을 통해 쟁의행위를 종료하고 복귀했지만, 사측은 노사 상생, 노사 협력은커녕 정직, 감봉, 견책 등의 징계를 쏟아붓고 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노조 혐오, 노조파괴로 지역사회에서 수많은 지탄을 받은 일진다이아몬드가 보복 징계까지 저질렀다. 지역 노동·시민사회를 무시한 만행이다”라고 규탄했다. 지부는 “지회 쟁의행위에 대한 보복징계를 철회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와 지회는 9월 21일 오전 충북지방노동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진다이아몬드의 부당징계를 규탄하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접수했다.

지회는 “파업이 끝나고 현장에 복귀한 조합원들을 기다린 것은 회사의 무차별 징계였다”라며 “일진다이아몬드는 금속노조 조합원 보복 징계를 통해 노동3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규탄했다.

지회는 “쟁의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고, 노조법은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고,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를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측의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라며 “사용자가 이런 불법행위를 하면 부당노동행위로 처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지회 조합원 200여 명

가운데 40명을 징계위에 회부하고, 정직 15명, 감봉 21명, 견책 1명 등 징계를 했다. 나머지 세 명은 육아휴직 중으로 휴직 종료 이후 징계할 예정이다.

일진다이아몬드가 내세운 징계 사유는 파업 기간 불법 대체인력을 감시 현장순회, 노조 활동 방해 관리자에 대한 항의 시위, 노조 요구안 선전물 부착 행위 등이며, 심지어 전면파업 중 식사 준비를 위해 회사 안에서 마늘을 까다는 이유로 징계했다.

일진다이아몬드지회는 사측의 상여금 일방 삭감, 갑질 노사문화, 유해물질이 넘쳐나는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했다. 지회는 2019년 6월 26일부터 2020년 6월 7일까지 1년 가까이 전면파업을 벌이며 노조 인정과 임금,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고 노조파괴를 시도했다.